“생명 살린 이들과 호국영령 기립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⑥ 생명나눔 천도재 현장

생명나눔, 6월 6일 불암사서 봉행
장기기증자·순국선열 460위 모셔
유격대원 20위 봉안…육사생 동참
정현숙 단장, ‘신칼대신무’ 공연도

남양주 불암사=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32회 생명나눔 천도재’를 봉행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떠난 이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사진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육사생도들과 함께 이날 모셔진 위패에 예를 다하는 모습.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문 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불암사·생명나눔회원 및 순국선열을 위한 제32회 생명나눔 천도재’를 봉행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떠난 이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호국보훈의 달이자 현충일에 열린 이날 천도재에는 장기·시신기증 희망등록자와 후원회원, 유가족, 육군사관학교 생도, 불자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생명의 소중함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천도재에는 모두 460기의 위패가 모셔졌다. 위패에는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세상을 떠난 기증자들과 유가족은 물론 반려견·반려묘의 이름까지 함께 올랐다. 모든 생명의 인연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자비의 의미가 천도재 곳곳에 스며들었다.

특히 이날 천도재에는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불암산 일대에서 서울 수복과 지역 방어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 20위의 위패도 함께 봉안돼 의미를 더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1기 10명과 2기 3명, 육군 7사단 소속 군인 7명, 그리고 유격대를 도운 당시 불암사 주지 윤용문 스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천도재에서는 전통 진혼무인 ‘신칼대신무’ 공연이 펼쳐졌다. 무대를 맡은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은 경기도 재인청(才人廳) 살풀이 이수자로, 망자의 한을 풀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춤사위를 선보였다.

‘신칼대신무’는 딸이 죽은 아버지의 영혼을 인도해 극락으로 보내는 내용을 담은 전통춤이다. 긴 대나무 양 끝에 흰 창호지를 달아 잡귀를 막고 망자의 저승길을 닦는 의미를 지닌다. 정 단장은 느린 호흡과 절제된 몸짓 속에 슬픔과 그리움, 위로와 해원의 정서를 담아내며 경내를 숙연하게 물들였다. 흰 창호지가 바람을 가르며 흔들릴 때마다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과 생명나눔으로 새 생명을 살리고 떠난 이들의 숭고한 뜻을 함께 기렸다.

유가족을 비롯한 동참자들은 두 손 모아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영가들의 이름이 한 자 한 자 호명될 때마다 참가자들은 합장한 채 고개를 숙였고 경내는 생과 사를 초월한 깊은 위로와 발원이 퍼져나갔다.

한 동참자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천도재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불암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생명나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매년 이어오고 있는 생명나눔 천도재는 추모의식을 넘어 생명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불교계 대표 의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기기증자들의 숭고한 선택을 기억하고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불교적 생사관을 사회에 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천도재를 현충일에 봉행함으로써 생명나눔과 호국정신이 하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장기기증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린 이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모두 자신의 삶을 타인을 위해 내어놓았다는 점에서 같은 자비와 보살행의 정신으로 조명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천도재는 떠난 이를 위한 의식이기도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생명나눔 정신을 사회에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조혈모세포·시신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비롯해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 교육 등 다양한 생명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이 진혼무 ‘신칼대신무’를 선보이며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날 천도재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도 함께 자리해 선배 전우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천도재 동참자들이 두 손 모아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일면 스님의 생명나눔 천도재 법문

“구름처럼 왔다 가는 인생, 오늘 최선 다해 살아야”



생명나눔실천본부가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봉행한 ‘제32회 생명나눔 천도재’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우리가 참선할 때 가장 먼저 드는 화두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고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지 늘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옛 조사 스님들은 사람의 삶을 하늘의 구름에 비유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생겨나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 있는 것 같지만 바람 따라 흩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여든입니다. 열두 살에 절에 들어와 지금까지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잘한 일보다 부족했던 일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삶에 점수를 매겨봅니다. 과연 몇 점짜리 인생인가 생각해보면서 남은 삶만이라도 말과 행동, 표정을 바르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천도재에는 육군사관생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큰 꿈을 가지십시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만큼 자기 길이 열립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몸이 큰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결과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더 존경합니다. 100미터를 빨리 뛰는 사람보다 자기 힘을 다해 뛰고 쓰러지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 인생 80년 가운데 3년쯤은 없다고 생각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고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26년 전 간 이식을 받고 지금까지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나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이기에 살아 있는 동안 서로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도재는 영가들이 생사의 괴로움을 벗고 편안한 세계로 가기를 발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법문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열린 ‘불암사 · 생명나눔회원 및 순국선열을 위한 제32회 생명나눔 천도재’에서 설한 법문 중 일부입니다.

정리=임은호 기자

2026년 생명나눔실천본부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공고



지원 대상
- 백혈병, 소아암, 장기이식 대기자 등 회복 또는 완치 가능 환자
- 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 기타 내부 기준에 따라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신청 기간
- 매월 상시 접수

지원 내용
- 치료 및 수술에 필요한 의료비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및 범위는 심의를 통해 개별 결정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생명나눔실천본부 지원팀(☎ 02-720-772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